

정약용 효변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춘추관점보주(春秋官占補註)」의 효변설을 중심으로

임재규*

- I. 문제제기
- II. 「춘추관점보주(春秋官占補註)」를 통해 본 정약용의 효변론
- III. 춘추관점에 대한 황도주의 인식
- IV. 정약용 효변론에 대한 2가지 의문점
- V. 결어

I. 문제제기

『주역』은 대략 서주(기원전 약11세기~기원전 771년)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역』의 주(周)가 나라 이름인 점을 감안하면, 『주역』이 주나라 이전인 하나라나 상나라의 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주역』이 형성된 이후 『주역』과 가장 가까운 시대는 춘추시대(기원전 770년~기원전 476년)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주역』과 관련된 문헌은 『춘추좌씨전』이 대표적이다. 『춘추좌씨전』에는 『주역』과 관련된 점례가 많이 등장한다. 이 점례들은 춘추시대에 행해졌던 수많은 점례 중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중요한 점례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례들이 중요한 것은 춘추시대가 『주역』이 형성된 시기와 가장 가까워서 『주역』의 원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춘추좌씨전』의 여러 점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모괘지모괘(某卦之某卦)’라는 표현이다. 이 ‘모괘지모괘’라는 형식은 오늘날 통용되는 『주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춘추시대에는 오늘날 통용되는 ‘건괘(乾卦) 초구(初九)’라는 말 대신

* 中國 復旦大學 歷史學系

에 ‘건지구(乾之姤)’라는 말을 사용했다. ‘건괘(乾卦) 구이(九二)’ 대신에 ‘건지동인(乾之同人)’, 건괘(乾卦) 구삼(九三) 대신에 ‘건지리(乾之履)’ 등등 즉 『주역』 384효에 대해서 ‘모괘지모괘’라는 형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춘추시대 관점(官占)의 특징에 대해 수많은 역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다산 정약용이 그 대표적인 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다산은 그의 역학 저작인 『주역사전』에서 이 춘추시대의 관점에 대해 따로 한 편을 만들어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이것이 바로 「춘추관점보주」이다. 이 「춘추관점보주」를 통해 다산은 자신의 가장 특색적인 역학 이론인 효변론을 제기한다. 즉 다산은 자신의 핵심적인 역학 이론인 효변론을 『춘추좌씨전』에서 그 경전적 근거를 찾은 것이다.

중국 명대의 대학자인 황도주도 다산과 마찬가지로 이 춘추시대의 관점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춘추관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춘추설상범례십팔조(春秋說象凡例十八條)」를 지었다. 황도주도 이 「춘추설상범례십팔조(春秋說象凡例十八條)」를 통해 자신의 핵심적인 역학 이론인 효변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춘추관점에 대한 다산과 황도주의 이해가 어떠했으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¹⁾ 이를 통해 다산의 효변론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도했다.

II. 「춘추관점보주(春秋官占補註)」을 통해 본 정약용의 효변론

『주역사전』의 「춘추관점보주」는 다산 역학의 핵심 이론인 효변론의 경전적 근거가 되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산은 『춘추좌씨전』과 『국어』를 연구하면서 『주역』의 점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뽑아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다산이 정리한 「춘추관점보주」는 도합 20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²⁾

- 1) 진경중지서陳敬仲之筮 (莊公二十二年(기원전 672년), 觀之否(六四變), 일효

1)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다산 효변론과 황도주의 효변론을 비교한 논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 20조 각 조 괄호 안의 내용은 필자가 다산의 「춘추관점보주」를 정리하여 덧붙인 것임.

- 변))
- 2) 필만지서畢萬之筮 (閔公元年(기원전 661년), 屯之比(初九變, 일효변))
 - 3) 성계지서成季之筮 (閔公二年(기원전 660년), 大有之乾(六五變, 일효변))
 - 4) 진백벌진지서秦伯伐晉之筮 (僖公十五年(기원전 645년), 蠱(괘불변))
 - 5) 백희가진지서伯姬嫁秦之筮 (僖公十五年(기원전 645년), 歸妹之睽(上六變, 일효변))
 - 6) 진후납왕지서晉侯納王之筮 (僖公二十五年(기원전 635년), 大有之睽(九三變, 일효변))
 - 7) 왕자백료지어王子伯廖之語 (宣公六年(기원전 603년), 豐之離(上六變, 일효변))
 - 8) 지장자지어知莊子之語 (宣公十二年(기원전 597년), 師之臨(初六變, 일효변))
 - 9) 진후언릉지서晉侯鄆陵之筮 (成公十六年(기원전 575년), 復(괘불변))
 - 10) 목강동궁지서穆姜東宮之筮 (襄公九年(기원전 564년), 艮之八(艮之隨, 第二畫不變, 오효변))
 - 11) 최저취강지서崔杼取姜之筮 (襄公二十五年(기원전 548년), 困之大過(六三變, 일효변))
 - 12) 유길여초지어遊吉如楚之語 (襄公二十八年(기원전 545년), 復之頤(上六變, 일효변))
 - 13) 숙손표지서叔孫豹之筮 (昭公五年(기원전 537년), 明夷之謙(初九變, 일효변))
 - 14) 위령공지서衛靈公之筮 (昭公七年(기원전 535년), 屯之比(初九變, 일효변))
 - 15) 남괴지서南蒯之筮 (昭公十二年(기원전 530년), 坤之比(六五變, 일효변))
 - 16) 채묵대룡지어蔡墨對龍之言 (昭公二十九年(기원전 513년), 乾之坤(乾六爻皆變, 육효변))
 - 17) 양호구정지서陽虎救鄭之筮 (哀公九年(기원전 486년), 泰之需(六五變, 일효변))
 - 18) 중이반국지서重耳反國之筮 (僖公二十四年(기원전 636년), 屯豫之坤皆八, 삼효변))
 - 19) 동인영공지서董因迎公之筮 (泰之八)
 - 20) 성공귀진지서成公歸晉之筮 (簡王十二年(기원전 574년), 乾之否, 삼효변))

위의 20조 내용 중 1)에서 17)까지는 『춘추좌씨전』 중에서 뽑은 것이며, 18)에서 20)까지는 『국어』 중에서 뽑은 것이다. 그 시기는 장공 22년(莊公 二十二年) 즉 기원전 672년에서부터 애공 9년(哀公 九年) 즉 기원전 486년까지 약 186

년간이며, 춘추시대(기원전 770년~기원전 476년)의 중후반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주역』이 형성된 서주(기원전 약11세기~기원전 771년) 초기와 상당히 가까운 시기에 해당하므로 『주역』의 옛 전통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다산에 따르면, 위의 20조 내용 중에서 『주역』의 점서와 직접 관련된 조항은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조항이며, 나머지 10), 18), 19), 20) 조항은 하나라(기원전 약21세기~기원전 약16세기)의 『연산(連山)』, 은나라(기원전 약16세기~기원전 약11세기)의 『귀장(歸藏)』과 관련된 조항이다. 다산은 『주역』은 변효로 점을 치며, 하나라와 은나라의 역은 7, 8로 점을 친다고 보았다.³⁾

그리고 통용되는 점법에 따라 분류해보면, 괘불변(卦不變)의 경우는 4), 9) 총 2조항이고, 1효변의 경우는 1), 2), 3), 5), 6), 7), 8), 11), 12), 13), 14), 15), 17) 총 13조항이고, 2효변의 경우는 사례가 없으며, 3효변의 경우는 18), 20) 총 2조항이고, 4효변의 경우는 사례가 없으며, 5효변의 경우는 10) 총 1조항이고, 6효변의 경우는 16) 총 1조항이다. 19) 조항은 통용되는 점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이다.⁴⁾ 다산에 의하면 『주역』은 괘불변의 경우와 1효변의 경우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주역』이 아닌 하나라와 은나라의 역으로 본다.

그리고 위의 20조 내용 중에서 실제 점을 친 경우를 기록한 것은 1), 2), 3), 4), 5), 6), 9), 10), 11), 13), 14), 15), 17), 18), 19), 20) 총 16조항이고, 실제 점을 치지 않고 『주역』의 경문을 인용한 것은 7), 8), 12), 16) 총 4조항이다. 다산은 특히 이 실제 점을 치지 않고 『주역』의 경문을 인용한 이 네 조항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를 통해 다산은 역리사법 중 핵심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는 효변론의 확실한 증거로 제시한다. 16) 조항인 채묵대룡지언(蔡墨對龍之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을에 용이 강(絳)이라는 땅의 교외에 나타났다. (이 일에 대해) 위헌자가 채묵에게 물었다. 채묵이 대답하기를, “『주역』에도 있습니다. 건지구(乾之姤)의 효사에는 ‘잠룡이니 쓰지 말라’ 라고 되어 있고, 건지동인(乾之同人)의 효사에는 ‘용이 밭에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고, 건지대유(乾之大有)의 효사에는 ‘용이 하늘을 날다’ 라고 되어 있

3) 丁若鏞, 『周易四箋』, 卷7, 23(『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450.), “周禮太卜掌三易。然則雜用連山歸藏二易, 皆以七八爲占。故言遇艮之八。”

4) 송나라의 程迥은 다산과 달리 이 경우를 초효, 제2효, 제3효가 변하는 3효변으로 보았다. 丁若鏞, 『周易四箋』, 卷7, 30(『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453.), “程迥曰: 初二三以九變八, 而四五上不變爲八, 故曰泰之八也。”

고, 건지괘(乾之夫)의 효사에는 ‘항룡이니 후회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건지곤(乾之坤)의 효사에는 ‘나타난 여러 마리의 용이 머리가 없으니 길하다’ 라고 되어 있고, 곤지박(坤之剝)의 효사에는 ‘용이 들에서 싸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용이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누가 그것을 사물로 지칭했겠습니까?)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채목은 현재 통용되는 『주역』의 효제(爻題) 대신 ‘모지모(某之某)’라는 효변의 형식을 통해 『주역』 경문을 인용하고 있다. 채목이 실제 점을 치지 않은 상황에서 ‘모지모’라는 효변의 형식을 통해 『주역』 경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주역』이 성립될 당시 이미 효변을 감안해 효사를 지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셈이다. 춘추시대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초구니 상구니 하는 명칭을 쓰지 않았고, ‘모지모’라는 효변의 형식을 사용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다산은 「춘추관점보주」의 다양한 점례를 통해서 효변론의 경전적 근거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다산은 「춘추관점보주」에서 효변론에 대한 2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효변은 하나의 효만 변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효변은 본괘를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효변에 있어서 하나의 효만 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역』에서는 오직 하나의 효에만 변동이 있다. 그러므로 주공이 효사를 지을 때 단지 하나의 효가 변하는 것에 근거하여 물상을 관찰하고 점사를 세웠다. 만약 한 번 점서하는 데에 여러 효가 어지럽게 변동한다면 그 괘덕과 물상이 뒤섞이고 문란하여 비록 주공이나 공자의 지혜로도 알맞게 재단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춘추시대의 관점(官占)에서 이른바 ‘관지비(觀之否)’, ‘준지비(屯之比)’, ‘대유지건(大有之乾)’, ‘귀매지귀(歸妹之睽)’ 라고 한 것은 모두 하나의 효가 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 일찍이 여러 효가 어지럽게 변동하는 경우가 있었겠는가?⁵⁾

물론 앞에서도 분석한 바가 있지만, 「춘추관점보주」에서 1효변의 예가 다수

5) 丁若鏞, 『周易四箋』, 卷7, 28(『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452.), “秋, 龍見于絳郊. 晉魏獻子問於蔡墨. 墨對曰:“周易有之. 在乾之姤曰:‘潛龍勿用’, 其同人曰:‘見龍在田’, 其大有曰:‘飛龍在天’, 其夬曰:‘亢龍有悔’, 其坤曰:‘見群龍無首吉’, 坤之剝曰:‘龍戰于野’. 若不朝夕見, 誰能物之.”

6) 丁若鏞, 『周易四箋』, 卷7, 23(『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450.), “易唯一爻有變. 故周公之撰爻詞, 只據一爻之變, 而觀象立占也. 苟於一筮之間, 而諸爻亂動, 則其卦德物象, 混淆紊雜, 雖以姬孔之智, 亦無以化而裁之矣. 故春秋官占, 若所謂觀之否屯之比大有之乾歸妹之睽, 皆不過一爻之變. 何嘗有諸爻亂動?”

라 하더라도, 3효변의 경우, 5효변의 경우, 6효변의 경우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효변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다산은 다효변이 『주역』의 법이 아니라 하나라와 상나라의 옛법이라 주장한다.⁷⁾

한편, 「춘추관점보주」에 나타난 다산의 효변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은 본괘를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다산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주역』의 법은 괘와 효가 비록 변해도 그 상과 덕은 여전히 본괘를 위주로 한다. (예를 들어) 건괘가 구괘로 변하는 경우인 건지귀(乾之姤)에 ‘잠룡’이라고 하였는데, ‘용’은 건괘의 물상이다.⁸⁾

이상에서 「춘추관점보주」에 나타난 다산 효변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중국 역학사에 있어서 효변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황도주의 춘추관점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다.

Ⅲ. 춘추관점에 대한 황도주의 인식

황도주(黃道周, 1585~1646)는 명말의 대학자로 자는 유헌(幼玄), 또는 리약(螭若)이고, 호는 석재(石齋)이며 장포(漳浦)⁹⁾ 사람이다.¹⁰⁾ 역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역학 저서에 『역상정(易象正)』, 『역본상(易本象)』, 『삼역동기(三易洞璣)』 등이 있다.¹¹⁾ 이 중에서 『역상정(易象正)』은 그의 대표적인 역학 저작이며, 다산과 마찬가지로 효변론을 중심으로 『주역』 경문을 해석하고 있다. 특히 『역상정(易象正)』 권수 범례에 나오는 「춘추설상범례십팔조(春秋說象凡例十八條)」는 앞에서 언급한 다산의 「춘추관점보주」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우선 「춘추설상범례십팔조(春秋說象凡例十八條)」의 제목을 열거하

7) 丁若鏞, 『周易四箋』, 卷7, 24(『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450.), “所謂良之隨屯之豫, 明是夏商之舊法, 周易無此影也.”

8) 丁若鏞, 『周易四箋』, 卷7, 24(『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450.), “周易之法, 卦爻雖變, 其象其德, 仍以本卦爲主. 乾之姤曰潛龍龍, 是乾之物.”

9) 지금의 福建省 漳州市 漳浦縣.

10) 黃道周, 『易象正』, 「提要」, 1(『(景印)文淵閣四庫全書』,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8, 35-101).

11) 黃道周, 『易象正』, 「提要」, 1(『(景印)文淵閣四庫全書』,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8, 35-101).

면 다음과 같다.¹²⁾

- 1) 관지비(觀之否, 莊公二十二年(기원전 672년), 陳敬仲之筮)
- 2) 준지비(屯之比, 閔公元年(기원전 661년), 畢萬之筮)
- 3) 대유지건(大有之乾, 閔公二年(기원전 660년), 成季之筮)
- 4) 귀매지규(歸妹之睽, 僖公十五年(기원전 645년), 伯姬嫁秦之筮)
- 5) 대유지귀(大有之睽, 僖公二十五年(기원전 635년), 晉侯納王之筮)
- 6) 풍지리(豐之離, 宣公六年(기원전 603년), 王子伯廖之語)
- 7) 사지림(師之臨, 宣公十二年(기원전 597년), 知莊子之語)
- 8) 간지수(艮之隨, 襄公九年(기원전 564년), 穆姜東宮之筮)
- 9) 곤지대과(困之大過, 襄公二十五年(기원전 548년), 崔杼取姜之筮)
- 10) 복지이(復之頤, 襄公二十八年(기원전 545년), 遊吉如楚之語)
- 11) 명이지겸(明夷之謙, 昭公五年(기원전 537년), 叔孫豹之筮)
- 12) 준지비(屯之比, 昭公七年(기원전 535년), 衛靈公之筮)
- 13) 곤지비(坤之比, 昭公十二年(기원전 530년), 南蒯之筮)
- 14) 건지곤(乾之坤, 昭公二十九年(기원전 513년), 蔡墨對龍之言)
- 15) 태지수(泰之需, 哀公九年(기원전 486년), 陽虎救鄭之筮)
- 16) 건지비(乾之否, 簡王十二年(기원전 574년), 成公歸晉之筮)
- 17) 준예지곤(屯豫之坤, 僖公二十四年(기원전 636년), 重耳反國之筮)
- 18) 태지곤(泰之坤, 董因迎公之筮)

황도주는 『역상정(易象正)』 권수에 이 「춘추설상범례십팔조(春秋說象凡例十八條)」를 싣고 있는데, 이는 『역상정(易象正)』의 주요 내용이 춘추시대의 옛 점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즉 황도주는 『춘추좌씨전』과 『국어』의 옛 점례에 근거해서 자신의 역학 이론인 효변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 점은 다산이 효변론을 제기한 이유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의 「춘추관점보주」와 비교해 볼 때, 황도주의 「춘추설상범례십팔조(春秋說象凡例十八條)」는 보다 분명하게 효변론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황도주는 춘추관점 18조의 제목을 내용 위주가 아닌 효변 위주로 달고 있다. 예를 들어, 춘추시대 기원전 672년에 기록되어 있는 진나라 경중의 점서에 대해 ‘진경중지서(陳敬仲之筮)’라는 제목 대신 ‘관지비(觀之否)’라는 제목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12) 18조 각 괄호 안의 내용은 필자가 다산의 「春秋官占補註」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효변에 대한 강조는 『역상정(易象正)』의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역상정』은 『주역』 384효에 대해 기존의 초구나 초육 등의 효제(爻題) 아래에 효변의 형식인 ‘모지모(某之某)’라는 작은 표제를 덧붙이고 있다. 즉 황도주는 춘추시대의 옛 점법에 기반하여 자신의 역설을 전개하고 있는 셈이다.

「춘추설상범례십팔조(春秋說象凡例十八條)」는 다산의 「춘추관점보주」에 비해 2조항이 적다. 즉 「춘추관점보주」의 네 번째 조항인 진백벌진지서(秦伯伐晉之筮)와 아홉 번째 조항인 진후언릉지서(晉侯鄆陵之筮)가 빠져 있다. 이는 이 두 조항이 모두 효가 변하지 않는 예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황도주는 춘추시대의 관점 중에서 효변이 있는 조항만 뽑아서 「춘추설상범례십팔조(春秋說象凡例十八條)」를 만든 것이다.

「춘추관점보주」와 비교했을 때, 「춘추설상범례십팔조(春秋說象凡例十八條)」의 가장 큰 특징은 다효변에 대한 인정이라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다산은 다효변을 인정하지 않고 1효변만 인정한다. 이에 반해 황도주는 다효변이 춘추시대의 옛 점법이었음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목강동궁지서(穆姜東宮之筮)의 경우 다산은 간지팔(艮之八)에 대해 “하나라의 연산역과 은나라의 귀장역은 모두 7, 8로서 점을 치는 까닭에 ‘遇艮之八’이라고 말한 것이다.”¹³⁾라고 지적한 반면, 황도주는 “(艮之八은) 다섯 개의 효가 모두 변동하고 제2효만 변동하지 않은 것이다. …… 『주역』에는 다섯 개의 효가 변동할 경우 변동하지 않는 효로 점을 친다.”¹⁴⁾라고 분명하게 언급한다. 목강동궁지서(穆姜東宮之筮)의 간지팔(艮之八) 뿐만 아니라 중이반국지서(重耳反國之筮)의 준예지곤개팔(屯豫之坤皆八), 동인영공지서(董因迎公之筮)의 태지팔(泰之八), 성공귀진지서(成公歸晉之筮)의 건지비(乾之否) 등도 모두 하나라와 상나라의 옛 법이 아니라 『주역』의 방식임을 밝혔다.

이러한 ‘다효변’의 문제 외에는 춘추관점의 효변에 대한 인식이 다산과 황도주가 크게 다르지 않다. 황도주는 춘추의 관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춘추좌씨전』이 ‘모괘지모괘’라는 효변의 원칙에 따라 본괘 + 지괘의 틀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황도주는 「춘추설상범례십팔조(春秋說象凡例十八條)」 중 2)조 필만지서(畢萬之筮)에서 점친 결과인 준지비(屯之比)에 대해 “이것은 본괘와 지괘의 괘사를 논하고 아울러 물상을 취한 것”¹⁵⁾으로 이해한다. 즉 황도주는 춘

13) 丁若鏞, 『周易四筮』, 卷7, 23(『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450.), “二易皆以七八爲占, 故言遇艮之八.”

14) 黃道周, 『易象正』, 「凡例」, 3(『景印文淵閣四庫全書』,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8, 35-111). “五爻皆動, 而二獨不動, …… 易有五爻皆動, 而占其不動者.”

지비(屯之比)에 대해 본괘인 준괘와 지괘인 비괘의 과사와 물상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 점을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IV. 정약용 효변론에 대한 2가지 의문점

이상 춘추관점에 대한 정약용과 황도주의 해석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효변론 중 ‘다효변’의 문제에 대한 해석에서 정약용과 황도주가 서로 상반되는 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황도주는 중국 역학사에 있어서 효변론을 대표하는 학자이며, 따라서 그의 효변론은 중국 역학사를 대표하는 이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도주 이전 효변론을 대표하는 역학자 중 송대의 도걸이나 심해, 원대의 진응운 등도 모두 ‘다효변’에 대해 어떤 문제도 제기한 바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약용의 일효변론은 특수한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정약용의 ‘일효변론’에 대한 의문점

다산의 일효변론에 대해 드는 의문점 중의 하나는 ‘용구’와 ‘용육’의 문제이다. 다산도 스스로 말한 바가 있지만, 건괘의 용구와 곤괘의 용육이라는 일효변이 아닌 육효변의 실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건괘의 용구는 점서하는 과정에서 여섯 효가 모두 변할 때 쓰는 점사이고, 곤괘의 용육도 여섯 효가 모두 변할 때 쓰는 점사이다. 이처럼 일효변이 아닌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산이 주장하는 일효변론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다산은 「춘추관점보주」에서는 ‘용구’와 ‘용육’은 예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건괘와 곤괘의 경우는 여섯 자리가 모두 순일하기 때문에 용구와 용육이 있는 것이다. 다른 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주공이 특별히 건괘와 곤괘에 사례를 제시하여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유추하게 했다고 한다면, 건괘와 곤괘의 내부에 2개의 효, 3개의 효가 변동한다거나 4개의 효, 5개의 효가 변동하는 경우에 대해 왜 주공이 사례를 들어 후세에 보이지 않았겠는가?” 즉 다산은 용구와 용육은 건괘와 곤괘라는 특수한 괘에 한정된 예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15) 黃道周, 『易象正』, 「凡例」, 1(『(景印)文淵閣四庫全書』,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8, 35-110). “此論兩象, 而兼取象者也.”

전통적인 시괘법에 따라 괘를 뽑는 과정에서 효가 변하는 경우는 매우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그런데 다산의 견해에 따르면, 건괘와 곤괘의 경우에만 여섯 효가 모두 변동하는 예외를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시괘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 준괘의 여섯 효가 모두 변동할 경우도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럴 때는 ‘용구’와 ‘용육’이 없으니 여섯 효 중에서 하나의 변괘를 선택해야 한다. 즉 건괘와 곤괘를 제외한 62괘의 경우는 여섯 효가 모두 변동하는 경우에 따로 이 여섯 효 중에서 하나의 변효를 선택해야만 한다. 전통적인 시괘법인 『계사전』의 ‘사영십팔변(四營十八變)’의 방식에 따라 괘를 뽑았는데, 하나의 변효를 선택하기 위해서 경문에도 존재하지 않는 추가적인 작위법을 덧붙이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다산의 이러한 방법은 약 3,000여년의 역학사에 있어서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주장이다. 더구나 공자가 지은 『계사전』의 내용까지 넘어서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새로운 해석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예외’라는 언사보다는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구’와 ‘용육’의 문제 이외에 「춘추관점보주」에 등장하는 다효변의 점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춘추관점보주」에는 1효변의 경우가 총 13조항이고, 3효변의 경우가 총 3조항이고, 5효변의 경우가 총 1조항이고, 6효변의 경우는 총 1조항이다. 즉 1효변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3효변이나 5효변, 그리고 6효변의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게 춘추시대에 존재한 다효변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다산은 다효변의 점례는 『주역』의 사례가 아닌 하나라와 상나라의 옛 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간지수(艮之需)’와 ‘준지예(屯之豫)’ 등은 하나라와 상나라의 옛 법임이 분명하고 『주역』에는 이런 흔적조차 없다.”¹⁶⁾ 물론 다산이 든 다효변의 예는 표면적으로 볼 때, 두예(杜預)와 위소(韋昭)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주례』에 따르면 태복은 (연산역, 귀장역, 주역의) 세 가지 역을 관장한다. 그러한 즉, 이 세 가지 역을 혼용하는데, (연산역과 귀장역) 두 역은 모두 7, 8로서 점을 치는 까닭에 ‘우간지팔(遇艮之八)’이라고 말한 것이다.”¹⁷⁾ 다산이 언급한 ‘간지수(艮之需)’는 ‘간지팔(艮之八)’에 해당하며, 이는 두예의 말처럼 하나라나 상나라의 옛 법일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준지예(屯之豫)’도 ‘정준회예개팔(貞屯悔豫皆八)’에 해당하며, 이는 위소가 말

16) 丁若鏞, 『周易四箋』, 卷7, 24(『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450.), “所謂艮之隨屯之豫, 明是夏商之舊法, 周易無此影也.”

17) 丁若鏞, 『周易四箋』, 卷7, 23(『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450.), “周禮太卜掌三易, 然則雜用連山歸藏. 二易皆以七八爲占, 故言遇艮之八.”

한 바와 같이 하나라와 상나라의 옛 법일 수 있다. 그렇지만 해당하는 춘추관점을 자세하게 읽어본다면, 다산의 주장과 다르게 읽힐 수도 있다. ‘간지팔(艮之八)’에 대해 두예는 “태사가 고역(古易)의 방식에 따라 8이 나오는 경우를 얻으면 불리할까 의심하여 다시 『주역』으로 변효를 점쳐서 수괘를 얻어서 논한 것이다.”¹⁸⁾ 즉 두예는 목장동궁지서(穆姜東宮之筮)에서 처음에는 연산역이나 귀장역으로 점을 쳐 ‘간지팔(艮之八)’을 얻었지만, 태사가 이를 불리한 것으로 여겨 다시 『주역』으로 점을 쳐 ‘간지수(艮之需)’를 얻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간지팔(艮之八)’과 ‘간지수(艮之需)’는 각각 다른 역을 이용해 점을 친 것이며,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산이 두예가 말한 바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간지팔(艮之八)’, ‘정준회예개팔(貞屯悔豫皆八)’, ‘태지팔(泰之八)’ 이 세 가지는 『주례』의 논리에 따라 하나라와 상나라의 옛 방식이라 한다면, 7, 8의 경우가 아닌 ‘건지비(乾之否)’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춘추관점보주」의 마지막 조항인 20) 성공귀진지서(成公歸晉之筮)에는 ‘건지비’라는 점례가 나온다. 이는 『주례』에서 말하는 7, 8의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이는 『주역』의 방식에 따라 점을 친 경우이며, 초효, 제2효, 제3효가 변동한 즉 세 효가 변동한 경우이다. 성공귀진지서(成公歸晉之筮)에 대해 위소가 연산역이나 귀장역이라는 주장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주역』의 방식에 따라 점을 친 경우로 간주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산은 이에 대해 여러 효가 변하는 경우는 『주역』의 방식이 아닌 하나라나 상나라의 옛 방식이라고 단정짓는다.¹⁹⁾ 그리고 다산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다산은 왜 필요하고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효변’만을 주장하는 것일까? 필자가 판단하기에 다산이 효사 형성의 논리에 집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주공이 효사를 지을 때, 일효변만을 고려해서 지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통용되는 『주역』 원문을 보면, 일효변의 경우만 있기 때문이다. 다산이 주장하는 것처럼 ‘용구’와 ‘용육’을 제외한다면 다효변의 효사는 존재하지 않는다.²⁰⁾ 그렇지만 우리는 효사의 형성과 서법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18) 丁若鏞, 『周易四箋』, 卷7, 23(『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450.), “史疑占易, 遇八爲不利, 故更以周易占變爻, 得隨卦而論之.”

19) 丁若鏞, 『周易四箋』, 卷7, 31(『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454.), “案, 乾之否, 亦 夏商之舊法也.”

20) 물론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효사의 형성에 다효변의 경우를 상정할 수는 있다. 한나라 초공의 역법이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서법에 따르면 다효변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다효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한 매우 자연스럽게 점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점법을 통해 다효변의 문제를 해결하면, 효사의 형성과도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사 형성의 논리와 서법의 논리를 역지로 1:1 대응으로 맞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은 효사의 형성과 서법의 논리를 일치시키기 위해 기존의 서법을 부정하고 새로운 서법을 창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역사전』 중의 『시괘전』이다. 다산은 새로운 서법을 통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

다산은 『시괘전』에서 1효변을 주장하기 위해 『계사전』의 “상하 두 편의 책은 모두 11,520책이니 만물의 수에 해당한다.”²¹⁾라는 구절을 재해석한다. 즉 점서를 행할 때는 『주역』 384효 각 효에 해당하는 시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 시책이 도합 11,520책이 된다. 예를 들어, 건괘의 초구에 해당하는 시책은 36책이고, 곤괘 초육에 해당하는 시책은 24책이다. 이렇게 해서 384효 11,520책이 준비되어야 점서를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야만, 다효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령 한 차례 점을 쳐서 준괘(屯卦)를 얻었는데, 그 초획과 제2획이 모두 순획을 얻었다면, 서인(筮人)은 상독(上贖)을 뽑아 열어, 준괘 초구의 시책 36매와 준괘 육이의 시책 24매를 취하여 합치고 섞은 다음 4개씩 헤아려 나가는데, 마지막 남은 시책 4매를 취하여 임의로 그 하나를 뽑는다. 만약 그 뽑은 것이 초구의 시책이면 초효가 변하는 것이 되고, 육이의 시책이면 제2효가 변하는 것이 된다.”²²⁾

만약 이러한 다산의 논리를 따르면, 다효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역학사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이론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산은 새로운 서법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경전 속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수는 있지만, 그 경전적 근거는 미약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3,000여년의 역학사에 있어서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바를 새로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필요하고 충분한 전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다산의 해석이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21) 丁若鏞, 『周易四箋』, 卷8, 22(『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471.), “二篇之策萬有一千五百二十, 當萬物之數也.”

22) 丁若鏞, 『周易四箋』, 卷8, 23(『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472.), “假令一筮之間, 其卦遇屯, 而其初畫與第二畫, 俱得純畫, 則筮人抽上贖, 取屯初九之策三十六枚, 屯六二之策二十四枚, 合同滾轉, 亦四四揲之, 取末後之策四枚, 任抽其一. 若是初九之策則初爻變, 若是六二之策則第二爻變.”

다효변론의 문제에 대해 송대에 출토된 유물인 ‘중방정(中方鼎)’의 명문(銘文)을 참고할 수도 있겠다. 중국의 학자 이학근(李學勤)은 그의 저서 『周易溯源』 중 「中方鼎与周易」이라는 글에서 숫자괘의 효변을 고증한 바가 있다.

문구 중의 ‘尙’ 자는 『좌전』과 『국어』의 점례에서 널리 쓰이는 허사이다. 숫자 부호는 장정량 선생이 이미 『주역』과 연관지어 해석한 바가 있다. ‘칠팔육육육육’은 곤하간상의 박괘(剝卦)이고, ‘팔칠육육육육’은 곤하감상의 비괘(比卦)이다. 양자의 관계는 효변이다. 『좌전』과 『국어』의 예에 의거하면, ‘박지비(剝之比)’로 칭할 수 있다.²³⁾

위 인용에서 ‘박지비’는 박괘의 육오와 상구 두 효가 변하여 비괘로 변동한 경우이다. 즉 육오효와 상구효가 변동한 이효변의 예이다. ‘중방정’이 서주 초기의 출토 유물로 고증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서주 초기에도 『주역』의 효변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효변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다효변의 고고학적 증명이기도 하다. 이러한 출토 유물을 통해서도 다효변은 『주역』의 고유한 방식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정약용의 ‘지괘위주론’에 대한 의문점

‘일효변론’과 함께 「춘추관점보주」에서 볼 수 있는 다산의 효변론은 ‘본괘위주론’이다. 서법에서 본괘와 지괘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본괘와 지괘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괘를 중심으로 하고 지괘를 보조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는 별 의문점이 없을 듯하다.

그런데 다산은 그의 대표적인 역학서인 『주역사전』의 「효변표직설(爻變表直說)」에서는 이와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다.

구는 노양(老陽)이고 육은 노음(老陰)이다. ‘노’의 개념에는 변하지 않음이 없으니, 구와 육은 이미 변했음을 나타내는 명칭이고, 변하지 않으면 구와 육이 아니다. 시괘법에 따라 세 번 모두 홀수(1,3,5,7,9)를 얻으면 그 수는 구가 된다. 세 번 모두 짝수(2,4,6,8,10)를 얻으면 그 수는 육이 된다. …… ‘초구(初九)’라고 한 것은 초획이 변

23) 李學勤, 『周易溯源』, 成都: 巴蜀書社, 2006, p. 216, “句中的‘尙’字, 是《左传》、《国语》卜筮辞常用的虚词. 数字符号, 张政娘先生已用《周易》解释. “七八六六六六”是坤下艮上的《剝》卦, “八七六六六六”是坤下坎上的《比》卦, 两者的关系是爻变. 依《左》、《国》之例, 可称为遇《剝》之《比》.”

동하여 음이 된 것을 말하며, ‘초육(初六)’ 이라고 한 것은 초획이 변동하여 양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즉, 주공이 효사의 글을 지을 때부터 이미 변한 것을 위주로 하여 그 물상을 이용한 것이니, 효변을 알지 못하면 주공의 효사를 읽을 수 없는 것이다.²⁴⁾

위의 인용은 다산의 효변론이 본괘를 중심으로 하는 효변이 아니라 지괘를 중심으로 하는 효변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다산은 “주공이 효사의 글을 지을 때부터 이미 변한 것을 위주로 하여 그 물상을 이용한 것”으로 보았다. 「효변표 직설(爻變表直說)」은 다산의 효변에 대한 핵심적 설명이라는 점에서 이는 다산 효변론의 관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앞에서 살펴본 「춘추관점보주」에 나타난 효변설과는 약간 다르다.

실제로 다산은 『주역사전』의 384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서 ‘지괘’를 위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건괘 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령 건괘의 구사는 소축괘인데, 소축괘는 구괘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그 상이 도약하는 것이 된다.²⁵⁾

즉 다산은 건괘 구사의 효사인 “때로 연못에서 뛰어 오르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²⁶⁾에서 ‘뛰어 오르는’ 상을 본괘인 건괘에서 구하지 않고 지괘인 소축괘에서 구하고 있다. 다산에 의하면 소축괘는 구괘로부터 왔는데 구괘의 때에 초효가 소축괘의 제4효로 감에 따라 이 ‘뛰어 오르는’ 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²⁷⁾ 물론 다산은 ‘지괘’ 위주의 효변론에도 예외가 있음을 인정한다.

한 획이 이미 변동하면 전체 괘가 변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효사를 지을 때 오르고 내리

24) 丁若鏞, 『周易四箋』, 卷1, 12(『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306.), “九者, 老陽也. 六者, 老陰也. 老無不變, 則九六者, 既變之名. 不變, 非九六也. 筮法三掛皆得天數, 則其數爲九. 三掛皆得地數, 則其數爲六. 此其所以爲老也. 天地之間, 不可一刻而無陰, 亦不可一刻而無陽. 故純陽則直變爲陰, 純陰則直變爲陽. 其曰初九者, 謂初畫動而爲陰也, 其曰初六者, 謂初畫動而爲陽也, 則周公撰詞之初, 原主既變之體, 而用其物象. 如潛龍爲變巽之物, 履霜爲變震之象. 不知爻變, 則不可以讀周公之詞也.”

25) 丁若鏞, 『周易四箋』, 卷1, 13(『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307.), “假如乾之九四小畜也. 小畜自姤來, 故其象爲躍.”

26) 丁若鏞, 『周易四箋』, 卷1, 41(『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321.), “九四, 或躍在淵, 無咎.”

27) 丁若鏞, 『周易四箋』, 卷1, 41(『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321.) 참조.

고 가고 오는 상황 모두 변상을 취했다. 그러나 괘주가 되는 효에 있어서는 그 변동을 유보하여 그 변화를 쫓지 아니하고 추이의 본상만을 이용하여 이 획이 괘주가 됨을 밝혔다.²⁸⁾

즉 다산은 ‘괘주가 되는 효’에 있어서는 효변을 적용하지 않고 그 추이의 본상만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에서 필자는 다산의 효변론에 있어서 「춘추관점보주」에서 제시한 ‘본괘위주론’과 「효변표직설」에서 제시한 ‘지괘위주론’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효변론에 대한 다산의 최종적인 결론은 「효변표직설」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다산의 이러한 ‘지괘위주론’은 다산 이전 중국 역학자의 효변론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명대의 대학자 황도주는 중국역학사에 있어서 효변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효변론의 경전적 근거도 다산과 마찬가지로 『춘추좌씨전』과 『국어』의 『주역』과 관련된 점례에 있다. 황도주는 이처럼 춘추시대의 관점에 근거해서 자신의 효변론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는 본괘의 괘사와 지괘의 괘사를 함께 효사 해석에 활용하고 있다. 다산이 지괘를 위주로 해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해석이다. 특히 황도주는 384효 효사를 해석하기 전에 본괘의 괘사와 지괘의 괘사를 나란히 배열하여 이 효는 본괘의 괘사와 지괘의 괘사를 결합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황도주뿐만 아니라 중국역학사에 있어서 효변으로 『주역』을 해석하는 전통에서 있는 송대의 도결과 심해, 원대의 진응윤, 청대의 포의 등도 모두 본괘 + 지괘라는 틀로 384효 효사를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다산의 효변론은 분명 중국역학사에서 나타나는 효변론의 전통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산의 ‘지괘위주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다산이 기존의 전통적인 해석법에서 벗어나 지괘 중심의 효변론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산이 역학 이론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괘 중심의 효변론은 해석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 본괘 중심의 해석은 수많은 곳에서 『설괘전』의 물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지괘 중심의 해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해석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28) 丁若鏞, 『周易四箋』, 卷1, 15(『與猶堂全書』 3,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p. 308.), “一畫既動, 全卦遂變. 故聖人之撰爻詞, 其升降往來之情, 皆取變象. 然於卦主之爻, 又爲之留其所動, 不逐其變, 而專用推移之本象, 以明此畫之爲卦主.”

V. 결어

다산은 「춘추관점보주」에서 자신의 효변론의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다. 「춘추관점보주」를 통해 본 다산 효변론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일효변론’이고, 다른 하나는 ‘본괘위주론’이다. 중국 전통의 효변론의 입장에서 볼 때, ‘본괘위주론’은 전통적 효변론의 틀과 일치하지만, ‘일효변론’은 전통적 효변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산의 ‘일효변론’에 대해 필자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는 다산 효변론의 이론적 근거이기도 한 춘추시대의 점례 중 성공귀진지서(成公歸晉之筮)에 나오는 ‘건지비’²⁹⁾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산은 이에 대해 다효변은 『주역』의 방식이 아닌 하나라나 상나라의 옛 방식이라고 할 뿐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주례』에 따라 7과 8로 점을 치는 경우가 하나라와 상나라의 역이라고 했을 때, 7과 8이 아닌 경우인 이 ‘건지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산의 효변론이 춘추시대의 관점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춘추시대의 관점인 ‘건지비’의 경우는 다산의 ‘일효변론’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는 서주 초기의 유물로 추정되는 ‘중방정(中方鼎)’의 명문에 새겨져 있는 ‘다효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이다. 다산의 ‘일효변론’으로 이 중방정의 ‘다효변’을 설명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편 다산이 「춘추관점보주」에서 제시한 ‘본괘위주론’은 중국 전통의 효변론의 틀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다산은 「춘추관점보주」에서 제기한 것과 달리 자신의 대표적인 역학 저작인 『주역사전』에서는 ‘지괘위주론’을 펼치고 있다. 물론 ‘지괘위주론’은 효변론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해석일 수는 있지만, 중국 전통의 효변론에서 볼 때는 분명 다른 해석이다.

중국역학사에 있어서 효변론은 『주역』 해석 방법론의 주요한 흐름 중의 하나였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도 늘 존재해왔다. 송말원초의 역학자 정역동은 『역상의』 「역통론」에서 “효변은 진실로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384효 매 효마다 지괘로 해석하는 것은 통할 수 없다.”³⁰⁾고 했다. 그리고 청대의 사고관신은 송나라의 대표적인 효변론자인 도결의 『역변체의』에 대한 평가에서 “(『역변체의』에서 제시된 효변의) 예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문맥이 통하고 그 뜻이 바르지만, 또한 건강부회라는 비판도 벗어나기 어렵다.”³¹⁾고 했다.

29) 「춘추관점보주」의 마지막 20) 조항.

30) 丁易東, 『易象義』, 「統論」, 2(『(景印)文淵閣四庫全書』,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8, 21-480), “夫變卦誠不可少, 然爻以之卦言, 則不通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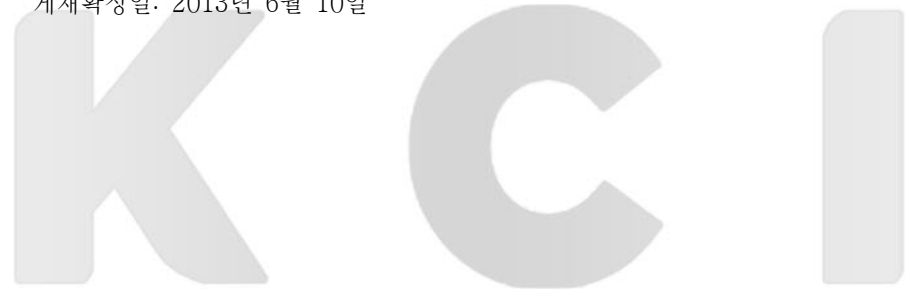
전통적 효변론이라 할 수 있는 본괘 + 지괘 틀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건강부회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본괘 + 지괘의 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괘위주’의 효변론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주역』 해석의 정합성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합성을 위해 새로운 이론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일이다.

주제어: 정약용, 효변, 일효변, 다효변, 본괘위주, 지괘위주, 춘추관점보주

원고접수일: 2013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0일



31) 都察 撰, 『易變體義』, 「提要」 2(『(景印)文淵閣四庫全書』,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8, 11-628), “如此之類, 皆不事傳會而自然貫通, 立義亦皆正大, 亦有涉于牽強者.”

참고문헌

- 丁若鏞, 『周易四箋』, 『與猶堂全書』,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 茶山 丁若鏞 지음, 방인·장정욱 옮김, 『역주 주역사전』, 소명출판, 2007.
- 丁若鏞, 『易學緒言』, 『與猶堂全書』,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0.
- 馬端臨, 『文獻通考』, 『(景印)文淵閣四庫全書』,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8.
- 都絮 撰, 『易變體義』, 『(景印)文淵閣四庫全書』,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8.
- 王應麟, 『玉海』, 『(景印)文淵閣四庫全書』,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8.
-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景印)文淵閣四庫全書』,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8.
- 沈該, 『易小傳』, 『四庫全書薈要』,吉林人民出版社 영인본, 1997.
- 丁易東, 『易象義』, 『(景印)文淵閣四庫全書』,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8.
- 陳應潤, 『周易爻變易經』, 『(景印)文淵閣四庫全書』,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8.
- 黃道周, 『易象正』, 『(景印)文淵閣四庫全書』,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8.
- 包儀, 『易原就正』, 『(景印)文淵閣四庫全書』, 여강출판사 영인본, 1988.
- 王雲五 主持, 『合印四庫全書總目提要及四庫未收書目禁燬書目(一)』,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8.
- 余嘉錫, 『四庫提要辨證』, 國立北平圖書館, 1935.
- 黃開國 主編, 『經學辭典』, 四川人民出版社, 1993.
- 王鉄, 『宋代易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 潘雨廷, 『讀易提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李學勤, 『周易溯源』, 成都: 巴蜀書社, 2006.
- 張善文, 『周易辭典』, 上海古籍出版社, 1992.
- 張善文, 「石齋春秋說象凡例發微」, 『閩臺文化交流』, 2012. 1(계간), 2012.
- 翟奎風, 「黃道周『易象正』的成書、版本及崇禎本的發現」,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2010年第4期, 2010.
- 『中華易學大辭典』編輯委員會 編, 『中華易學大辭典』, 上海古籍出版社, 2008.
- 김인철, 『茶山の周易解釋體系』, 경인문화사, 2003.
- 김영우, 「丁若鏞의 易學 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김영우, 「『春秋左氏傳』의 占辭 解釋 研究 - 朱熹, 毛奇齡, 丁若鏞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21, 한국실학연구회, 2011.
- 김왕연, 「茶山 易學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방인, 「丁若鏞의 「朱子本義發微」 연구」, 《茶山學》19, 다산학술문화재단, 2011.

- 방인, 「丁若鏞의 『春秋官占補註』의 ‘夏商之舊法’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 出土易學자료의 관점에서 본 『連山』『歸藏』의 筮法」, 《퇴계학보》 131, 퇴계학연구원, 2012.
- 유문상, 「茶山 易學의 특성과 윤리적 함의」,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황병기, 「茶山 丁若鏞의 易象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Abstract>

A Critical Review on the Origin of Cheong Yakyong's Yaobian Theory

- Focusing on the Yaobian Theory of *Complementary Commentary on the Official Divinatory Records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Im, Jaekyu(FUD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critical review on Cheong Yakyong's Yaobian theory expressed in his *Complementary Commentary on the Official Divinatory Records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春秋官占補註). Cheong Yakyong draw two conclusions from this *Complementary Commentary on the Official Divinatory Records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春秋官占補註), First is a 'Yiyaobian(一爻變)', Second is a 'Benguaweizhu(本卦爲主)'.

'Yiyaobian' is not a traditional concept, so author raise two questions in this paper. One Question is this: How do we understand 'Qianzhibi(乾之否)'s divinatory record of the Official Divinatory Records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According to Tasan's opinion, this divinatory record is not belong to the divinatory rule of the Zhouyi, this should be counted as belonging to the divinatory rule of the Lianshan and Guicang. But With regard to this opinion, Tasan did not provide a reasonable explanation. The other Question is this: How do we understand Zhongfangding(中方鼎)'s inscription, which was proved to be excavated materials of the Western Zhou(西周) period. According to Li Xueqin's opinion, Zhongfangding's inscription was the proof of 'Duoyaobian(多爻變)'.

'Benguaweizhu' of the Yaobian theory was a dominant view in the History of Chinese Yi Studies. But Unlike *Complementary Commentary on the Official Divinatory Records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春秋官占補

註), Cheong Yakyong insisted on ‘Zhiguaweizhu(之卦爲主)’ in his representative work *Zhouyisijian*(周易四箋). ‘Zhiguaweizhu’ must be a new interpretation of the Yaobian theory, but Tasan did not offer adequate grounds for this opinion.

Key Words : Cheong Yakyong(丁若鏞), Yaobian(爻變) theory, Yiyaobian(一爻變), Duoyaobian(多爻變), Benguaweizhu(本卦爲主), Zhiguaweizhu(之卦爲主), *Complementary Commentary on the Official Divinatory Records of the Spring and Autumn Period*(春秋官占補註)

